

朝鮮時代 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¹·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²

金勳¹ ** · 李海雄²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Heonjong in the Joseon Dynasty

Kim Hoon¹ ** · Lee Hai-woong²

¹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²Dept. of Public Health,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King Heonjong was the twenty-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He took the throne when he was only 8 years old, and had to go through power politics of maternal relations. During his period, situations worsene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meaning the beginning fall of the Joseon Dynasty.

In respect to the diseases and treatments of King Heonjong, there appeared very few articles compared with the previous King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Royal Secretariat, and the Diary of Kings of the Joseon Dynasty. He caught small pox and recovered in 10 days at the age of 17. Some articles showed that he suffered from symptom of indigestion, dyspepsia and edema. He died at 23 and had no descendants. We assume that the cause of death was due to worsening of kidney failure.

Key Words : Heonjong, Joseon Dynasty, King,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isease, cause of death

I. 序論

헌종(憲宗)은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독자로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에게서 1827년(순조 27년) 7월 18일에 탄생했다. 이름은 환(奘), 자(字)는 문응(文應), 호(號)는 원현(元軒)이다. 아버지 효명세자가

1830년 세상을 떠나자 4세의 나이로 세손(世孫)에 책봉되고, 그 4년 뒤인 1834년에 조부 순조가 승하하니 8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조선조 제24대 왕이 된다¹⁾.

헌종의 치세는 내외외환으로 조선후기 사회의 붕괴 조짐이 드러나던 시기였다.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로 등극한 헌종은 조모이며 순조의 왕비인 안동 김씨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수렴청정 과정을 거치면서 순조시대부터 시작된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겪어야 했다. 이후 헌종은 모친인 신정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08AA117)

** 교신저자 : 金勳.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24번지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E-mail: hkim@deu.ac.kr Tel: 051-850-8652

접수일(2009년 12월 19일), 수정일(2010년 1월 8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6일)

1) 朝鮮王朝實錄의 「憲宗大王實錄總序」를 참조함.

왕후(神貞王后)가 풍양 조씨(豐陽 趙氏)였기 때문에 안동 김씨와 함께 풍양 조씨라는 새로운 세도정치 세력의 등장을 맞기도 한다. 이러한 세도정치의 여파로 과거제도 및 국가 재정의 기본인 삼정(三政)이 문란해져 극도로 정국이 혼란해진다. 또한 재위 15년간 9년에 걸쳐 수재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계속되었으며, 순조 대부터 시작된 천주교 탄압은 '기해박해(己亥迫害)'로 이어져 훗날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근해 연안에 서양 선박인 이양선(異樣船)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민심이 소란해지기도 하였다²⁾.

저자는 그간 조선왕조 역대 임금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광범위한 의학사 연구분야 가운데 질병사 연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일반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적 질병사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 의학의 실상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임금들의 질병과 치료기록이 역사기록 중에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한 개인적 병력을 기술하고 있으며 당대 최고의 의료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헌종은 재위 15년 만에 창덕궁(昌德宮)의 중희당(重熙堂)에서 23세를 일기로 후사 없이 사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의 사료를 중심으로 헌종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³⁾.

II. 本論

2) 서울시스템(주). 국역 조선왕조실록 해설집. 서울, 서울시스템. 1995. pp.233-236.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6. pp.411-417.

3) 『朝鮮王朝實錄』의 사료는 서울시스템(주)의 '조선왕조실록CD-ROM'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를 이용하였다.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脫草 影印本)와 『日省錄』(규장각 소장 筆寫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원문자료검색 DB(<http://e-kyujanggak.snu.ac.kr>)를 이용함.

1. 헌종의 질병과 치료

1) 편년사료(編年史料)의 헌종 관련 기록

헌종은 1834년 11월 18일에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조모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수렴청정이 시작된다⁴⁾. 헌종 즉위년의 『朝鮮王朝實錄』 기록에는 별다른 질병관련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다만 『일성록(日省錄)』에 의하면 즉위 5일 후인 11월 23일에 대왕대비(純元王后), 왕대비(神貞王后)와 함께 인삼속미음(人蔘粟米飲)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⁵⁾. 인삼속미음은 속미음, 즉 좁쌀죽에 인삼을 더한 것으로 비장(脾臟)을 보해 주는 처방이다⁶⁾. 당시 전후의 기록에 특별한 병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 10일 전인 11월 13일에 순조가 승하하여⁷⁾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인삼속미음은 질병치료 목적의 처방이 아니라 감선(減膳)으로 인한 조리식(調理食)이나 쇠약해진 몸을 보해주고 기력을 찾기 위한 보양식(補養食) 정도로 생각된다.

헌종은 나이 11세가 되는 1837년 3월에 안동 김씨 김조근(金祖根)의 딸을 왕비로 삼는데⁸⁾, 그가 바로 효현왕후(孝顯王后)로 왕비 책봉 6년 만인 헌종 9년 8월에 16세를 일기로 요절하게 된다⁹⁾.

대왕대비 순원왕후는 헌종 6년 12월 수렴청정을 거둘 것을 하교하였고¹⁰⁾, 이듬해인 헌종 7년 3월 7일에 드디어 헌종은 친정(親政)을 시작하게 된다¹¹⁾.

4) "임금이 승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왕대비(王大妃)를 받들어 수렴청정(垂簾聽政)의 예(禮)를 흥정당(興政堂)에서 행하고, 조하(朝賀)를 받은 다음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고 대사(大赦)를 베풀었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즉위년 11월 18일)

5) "命進御 人蔘粟米飲. 大王大妃殿王王妃殿進御 人蔘粟米飲 自明日停止." (日省錄, 헌종즉위년 11월 23일)

6) "粟米 益脾. 作粥飯常食佳. 諸梁亦同.(本草)" (許澐. 신대역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410.)

7) "亥時 上昇遐于慶熙宮之會祥殿." (朝鮮王朝實錄, 순조 34년 11월 13일)

8)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김씨(金氏)를 책봉(冊封)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3년 3월 18일)

9) "중궁전(中宮殿)이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9년 8월 25일)

10) 朝鮮王朝實錄, 헌종 6년 12월 25일.

11) "대왕대비가 모립(母臨)한 지 40년이 되는 경사로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진하(陳

헌종의 경연(經筵), 소대(召對)¹²⁾, 약원(藥院)의 입진(入診) 등은 거의 창덕궁(昌德宮)의 편전(便殿)인 회정당(熙政堂)에서 이루어졌으나 간혹 중희당(重熙堂)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는 헌종의 내의원 입진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특별한 병증(病症)이나, 치료내용 등의 언급이 거의 나오질 않는다. 이것은 헌종이 겉으로는 비교적 건강했고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승정원(承政院)의 업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은대조례(銀臺條例)』에 따르면 약원의 입진은 닷새마다 1번씩, 즉 1달에 6번 입진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규정이고 경우에 따라 실제로는 거의 매일 국왕의 안부가 확인됐다¹³⁾. 따라서 약원의 단순한 입진기록만으로는 곧 임금이 질병을 앓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약원의 입진기록만 나타나다가 17세에 들어와 헌종이 두후(痘候)를 앓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약 10일 후에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헌종 9년 9월 27일에 임금의 두후로 인해 약원에서 입진하였다고 하였으며¹⁴⁾, 다음 날부터 약원의 직숙(直宿)¹⁵⁾이 시작된다¹⁶⁾. 다음 달 8일에 헌종의 두후는 차도를 보여 시약청(侍藥廳)을 철폐하며¹⁷⁾, 같은 날 그 공로로 시약청도제조(侍藥廳都提調) 이하에게 상과 가자(加資)를 내린다¹⁸⁾. 같은 달 22일에는

신하들이 인정전에서 권정례(權停例)¹⁹⁾로 임금의 두후(痘候)가 평복(平復)된 것을 진하(陳賀)한다²⁰⁾. 이렇게 『朝鮮王朝實錄』에는 헌종이 두후(痘候)를 앓아 약 10일 후에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단순한 입진 기록만 수록하고 자세한 치료과정은 상세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나 『일성록(日省錄)』에는 보다 자세한 치료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헌종의 두후(痘候)가 시작된 다음 날인 9월 28일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보면, 헌종의 증세와 사용된 처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당일의 기록에는 "약방에서 말로 아뢰길 '신등이 어제 경연에 나아가 우러러 보니 성후(聖候)의 과반(顆斑) 색깔이 밝고 빛나며 여러 증상들이 상서롭고 순조로워 아랫사람의 심정이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밤사이 증후의 모든 동정이 더욱 평순(平順)해지는 효험이 있습니까?' ... 가미활혈탕 한 첩을 달여 들였다."²¹⁾ 라고 한 것이다. 당일 『일성록』의 기록에도 가미활혈탕(加味活血湯) 진어(進御)를 말하고 있다²²⁾. 3일 뒤인 10월 1일에는 가미귀용탕(加味歸茸湯)을 올렸고²³⁾, 10월 2일에는 귀용보원탕(歸茸保元湯)을 올리고²⁴⁾, 10월 3일에는 귀용보원탕에 녹용(鹿茸) 1錢과 관계(官桂) 二分을 더해 올렸으며²⁵⁾,

賀)를 받고 사유(赦宥)하였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7년 3월 7일)

12) 소대(召對): 왕명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하는 것.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處, 1979, p.451.)

13) 박홍갑 외 2인. 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서울, 산치담, 2009, p.193.

14) "임금이 두후(痘候)가 있으므로 약원에서 중희당에 입진하였다.(上有痘候, 藥院入診于重熙堂.)" (朝鮮王朝實錄, 헌종 9년 9월 27일)

15) 직숙(直宿): 밤에 入直하는 것. 宿直.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處, 1979, p.760.)

16) "약원에서 구계(口啓)하여 입진을 청하고, 이어서 오늘부터 직숙(直宿)하겠다고 청하니, 비답(批答)을 내렸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9년 9월 28일)

17) "시약청(侍藥廳)을 철폐하고 제조(提調)는 본인(本院)에 물러가 직숙(直宿)하라고 명하였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9년 10월 8일)

18) "시약청 도제조(侍藥廳都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고, 제조(提調) 대호군(大護軍) 김도희(金道喜)와 부제조(副提調) 행 도승지(行都承旨) 서좌보(徐左輔)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또 행 호군(行護軍) 조병귀(趙秉龜)에게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9년 10월 8일)

19) 권정례(權停例): 조하(朝賀) 때에 임금의 임어(臨御)는 없더라도 권도(權道)로써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행하는 의식.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處, 1979, p.134.)

20)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의 두후(痘候)가 평복(平復)된 것을 진하(陳賀)하였는데, 권정례(權停例)로 하였다." (朝鮮王朝實錄, 헌종 9년 10월 22일)

21) "藥房口傳啓曰 臣等昨日 登筵仰瞻 聖候顆斑明潤 諸症祥順 下情不勝慶幸 夜來症候諸節 益有平順之效乎 ... 進御 加味活血湯 一貼煎入事." (承政院日記, 헌종 9년 9월 28일)

22) "命進御 加味活血湯 一貼煎入." (日省錄, 헌종 9년 9월 28일)

23) "命進御 加味歸茸湯 一貼煎入." (日省錄, 헌종 9년 10월 1일)

24) "命進御 歸茸保元湯 一貼煎入." (日省錄, 헌종 9년 10월 2일)

10월 4일에는 전일에 사용된 귀용보원탕에 관계(官桂)를 빼고 인삼·녹용을 一錢五分으로 한 탕제를 올린다²⁶⁾. 10월 6일에는 감로회천음(甘露回天飲)을 올린다²⁷⁾.

가미활혈탕은 활혈산(活血散)의 가감방으로 생각된다. 활혈산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痘瘡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은 2가지 정도가 된다²⁸⁾. 가미귀용탕은 귀용탕(歸茸湯) 가미방으로 생각된다. 당귀(當歸)와 녹용(鹿茸)을 等分·粉末하여 환을 만든 것을 귀용원(歸茸元)이라 하며, 이 귀용원을 술에 달여 먹는 것을 귀용탕(歸茸湯)이라 한다. 귀용탕은 貧血이나 陰痿證 그리고 허약자나 病後의 보약으로 쓰는 약으로²⁹⁾ 현종에게 사용된 가미귀용탕은 두창의 치료약보다는 두창이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 몸을 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귀용보원탕은 귀용원(歸茸元)과 보원탕(保元湯)을 합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귀용원은 허로(虛勞)로 음혈(陰血)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여러 증상에 쓰는 것으로 당귀(當歸)와 녹용(鹿茸)을 등분(等分)한 것이며³⁰⁾, 보원탕은 두창(痘瘡)의 주치방(主治方)으로 인삼·황기·감초를 썰어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이다³¹⁾. 감로회천음은 사탕가루 반잔을 끓인 물 1사발에 타

먹는 것으로 두창 등의 발진증에 열을 내리고 딱지를 앓히는 효과가 있다³²⁾.

재미있는 사실은 조부(祖父)이자 선대왕인 순조(純祖)도 비슷한 16세 무렵에 두창증세를 앓아 약 10일 후에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순조의 두창 치료에 가미활혈음(加味活血散), 가미귀용탕(加味歸茸湯), 감로회천음(甘露回天飲) 등을 사용하였는데³³⁾, 현종의 두창 치료에도 거의 같은 처방이 이용되었던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종은 17세 무렵 가벼운 두창 증세를 앓아 약 10일 후에 치료가 되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두창이 발병하기 약 1달 전에 왕비인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金氏)가 16세를 일기로 요절한다. 현종은 약 1년 뒤인 현종 10년 10월에 다시 계비(繼妃)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를 맞아들인다³⁴⁾.

이후 실록에는 또 다시 현종의 질병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종이 23세를 일기로 사망한 현종 15년의 기록을 제외하면 18세(현종 10년)부터 22세(현종 14년)까지의 5년간의 기록은 단순히 약원의 입진 사실만 여러 차례 열거할 뿐 특별한 병증이나 처방관련 기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현종은 23세가 되는 현종 15년에 들어와 봄부터 몸이 쇠약해져 질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정무(政務)를 놓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 병증이 더욱 가중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후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권돈인(權敦仁)이 지은 현종대왕행장(憲宗大王行狀)을 보면 "왕이 봄부터 병환이 들어 점점 시일이 갈수록 피곤함을 보이셨으나 오히려 만기(萬機)를 수작하여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태묘(太廟)에 전성(展省)하는 일과 기예(技藝)를 시험하고 선비를 시험하는 일 같은 데에 이르러서도 편찮다 하여 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대개 절제하여 고요히 조심하시는 방도를 또한 잃은 바가 많았다."³⁵⁾라고 한 것이다.

25) "命進御 歸茸保元湯 前方中 鹿茸 加一錢 官桂 加二分一貼煎入." (日省錄, 현종 9년 10월 3일)

26) "命進御 歸茸保元湯 前方中 官桂 人蔘 鹿茸 各減一錢五分一貼煎入." (日省錄, 현종 9년 10월 4일)

27) "命進御 甘露回天飲 一貼封入." (日省錄, 현종 9년 10월 6일)

28) 『東醫寶鑑』에도 2가지 종류의 活血散이 나온다. 그러나 모두 刀鎗傷이나 折傷 등의 외과질환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두창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痰論萃英』과 『醫學入門』에 두창에 사용되는 활혈산이 수록되어 나오는데, 『痰論萃英』에는 芍藥을 분말하여 溫酒나 溫水에 타서 복용하는 활혈산이 痘瘡이 돌아났으나 잘 透發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고 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痘가 淡白色을 띠는 경우에 當歸尾, 赤芍藥, 紫草, 紅花, 血竭, 木香 등을 분말하여 술에 복용하는 활혈산이 나온다.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2709.)

29)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28.

30)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1251.

31) "痘瘡首尾宜保元湯爲主治…保元湯 人蔘二錢 嫩黃芪·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一片 水煎服.(醫鑑)"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1775.)

32) "甘露回天飲 砂糖屑半盞 入白沸湯一椀 調服." "當靨不靨 發熱蒸蒸 用甘露回天飲 卽時熱退痘靨." "發膿窠不肯靨 但調砂糖水 與喫 卽結痂."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659.)

33) 拙稿를 참조할 것.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pp.107-126.)

34) "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홍씨(洪氏)를 왕비(王妃)로 책봉하였다." (朝鮮王朝實錄, 현종 10년 10월 18일)

당시 헌종은 얼굴이 여위고 꺼칠해지면서 불면증과 함께 식후에 배가 거북한 체기(滯氣)가 있었다. 헌종 15년 4월 10일의 기사에는 권돈인이 헌종에게 "옥색(玉色)이 여위고 색택(色澤)이 꺼칠하시니 아랫사람의 심정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일에는 주무시는 일이 어떠하십니까?"하니, 헌종이 "이번에 괴로운 것은 처음부터 체기(滯氣)가 발미가 되었고 별로 다른 증세는 없었다. 근일 이래로 체기가 자못 줄었고 잠도 조금 나아졌다."하였다³⁵⁾. 다음날 약원에서 가미이공산(加味異功散)을 달여 들인다³⁶⁾. 이공산은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식욕이 없고 복통설사(腹痛泄瀉)가 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다³⁷⁾. 이후 실록의 기록에는 4월 12일³⁸⁾, 13일⁴⁰⁾, 14일⁴¹⁾, 15일⁴²⁾, 18일⁴³⁾, 25일⁴⁴⁾, 윤4월 7일⁴⁵⁾, 윤4월 10일⁴⁶⁾에 간략히 약원에서 입진한 사실만 수록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성록』에는 당시 헌종에게 투여된 약

물처방 기록이 나온다. 헌종 15년 4월 27일의 기사를 보면 헌종에게 귀용군자탕(歸茸君子湯)을 진어하였는데⁴⁷⁾, 다음 달인 윤4월 7일에 귀용군자탕 복용을 정지하고 대신 가미불환금정기산(加味不換金正氣散)을 올리도록 한다⁴⁸⁾. 또 동월 10일에는 다시 귀용군자탕을 진어하였다가⁴⁹⁾, 동월 19일에 귀용군자탕 복용을 정지한다⁵⁰⁾.

이로 보건대 당시 헌종은 처음 귀용군자탕을 9일간 복용했다가 처방을 가미불환금정기산으로 바뀌어 약 3일 정도 복용했으며, 이후 다시 귀용군자탕을 9일간 복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귀용군자탕은 전술한 귀용원에 사군자탕(四君子湯)이나 육군자탕(六君子湯)을 합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⁵¹⁾脾胃虛弱으로 인한 식욕부진, 소화불량, 腹部痞悶, 전신권태 등을 치료하고 기력을 북돋고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미불환금정기산⁵²⁾은 원래 옹저(癰疽)로 인한 惡寒發熱, 骨節疼痛, 身倦, 乏力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다⁵³⁾. 그러나 실록을 비롯한 편년사료(編年史料) 가운데 헌종의 옹저 관련 병증이나 처방이 수록된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질 않는다. 당시에 헌종이 옹저를 앓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당시 헌종이 복용했던 가미불환금정기산은 옹저 관련 처방이 아니라 소화기형 감기에 쓰이는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가미방으

35) "王自春感疾 駭駭然日月示德 猶酬酢萬幾 無或倦勤. 至如太廟展省 與夫試藝試士 不以違豫而不行 蓋節宜靜攝之方 亦多失矣." (憲宗大王行狀)
 36) "都提調權敦仁曰 … 仰瞻天顏 則玉色瘦敗 色澤燥澁 下情不勝惶惶矣. 近日則寢睡之節何如? 上曰 今番所苦 始以滯氣爲祟 別無他證. 近日以來 滯氣頗減 而寢睡亦稍勝矣. …"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0일)
 37)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教曰 進御加味異功散 一貼煎入."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1일)
 38) "異功散 治脾胃虛弱 不思飲食 腹痛自利. 人蔘·白朮·白茯苓·陳皮·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薑三片 棗二枚 同煎服. (東垣)" (許浚, 신대역東醫實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429.)
 39)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2일)
 40)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3일)
 41)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4일)
 42)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5일)
 43)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18일)
 44)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4월 25일)
 45)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윤4월 7일)
 46) "行藥院入診于迎春軒." (朝鮮王朝實錄, 헌종 15년 윤4월 10일)

47) "命進御 歸茸君子湯 自今日一貼式煎入." (日省錄, 헌종 15년 4월 27일)
 48) "命進御 歸茸君子湯自今日停止 加味不換金正氣散 一貼煎入." (日省錄, 헌종 15년 윤4월 7일)
 49) "命進御 歸茸君子湯 自明日一貼式煎入." (日省錄, 헌종 15년 윤4월 10일)
 50) "命進御 歸茸君子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헌종 15년 윤4월 19일)
 51) 선대 순조(純祖)도 가미육군자탕이나 생위군자탕 등을脾胃虛로 인한 식욕부진·소화불량 등의 병증을 치료하고자 복용하기도 했다. (拙稿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52) "加味不換金正氣散 治癰疽寒熱往來 或挾風邪 或內氣虛 餒. 蒼朮·橘紅·半夏麴·藿香葉·厚朴 各一錢二分半 甘草炙一錢 白茯苓·川芎 各七分半 木香五分. 右剉 作一貼 入薑五棗二 水煎服.(直指)" (許浚, 신대역東醫實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588.)
 53)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24.

로 추측된다. 불환금정기산⁵⁴⁾은 식체(食滯)에 감기가 겹쳐 오슬오슬 춥기도 하고 열이 나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그득하니 거북한 증상에 사용되는 처방이다⁵⁵⁾.

현종은 이러한 약물 처방을 복용한지 약 10일 후에 종묘에 행차하기도 하는데⁵⁶⁾, 사망하기 약 2달 7일 전의 시점이 된다.

이로 보건대 당시 현종이 식욕부진, 소화불량, 감기증세 등의 병증 치료 목적으로 전술한 처방들을 복용했지만 거동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특별히 위중한 증세는 아직 드러나질 않았음을 볼 수 있다.

5월에 들어와 전술한 인삼속미음을 복용하기도 했는데⁵⁷⁾, 이 무렵 현종에게 부종(浮腫) 증상이 나타난다. 5월 14일의 기록에 권돈인이 의관의 말을 인용해 현종의 면부(面部)에 부기(浮氣)가 있다고 한 것이다. 당시 현종은 밤중에 소변을 반 요강 정도 보았다고 하면서 식사와 수면은 전일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부기(浮氣)가 있고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거북하다고 말한다⁵⁸⁾.

이후 특별한 질병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다가 사망 하루 전인 6월 5일에 병증이 깊어져 내의원의 의관들을 번갈아 숙직하도록 한 기사가 나온다⁵⁹⁾. 당일

『일성록』의 기사에는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 3첩을 복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⁰⁾. 가미군자탕은 가감사군자탕(加減四君子湯)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랜 병으로 위(胃)가 약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하는 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다⁶¹⁾.

사망 당일인 6월 6일의 기록을 보면 현종의 병세가 심각해져 약원에서 모두 입직하였고⁶²⁾, 곧 이어 대신과 각신(閣臣)⁶³⁾을 입시하게 하였으며⁶⁴⁾, 약원을 시약청(侍藥廳)으로 옮긴 기사⁶⁵⁾를 볼 수 있다. 또한 종묘(宗廟)·사직(社稷)·각궁(各宮)·산천(山川)에서 왕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행했으나⁶⁶⁾ 병세는 이미 위중해져서 대보를 대왕대비전에 바치라 명하게 되며⁶⁷⁾, 드디어 오시(午時)에 창덕궁(昌德宮)의 중희당(重熙堂)에서 23세를 일기로 승하하게 된다⁶⁸⁾.

『日省錄』에는 사망 당일에 계부이중탕(桂附理中湯)과 가미이중탕(加味理中湯)을 1첩씩 올리도록 명한 기사가 나온다⁶⁹⁾. 계부이중탕은 계부탕(桂附湯)과 이중탕(理中湯)의 합방으로 생각된다. 계부탕은 계지(桂枝)가 들어간 것⁷⁰⁾, 계피(桂皮)가 들어간 것⁷¹⁾, 육계(肉桂)가 들어간 것⁷²⁾의 3가지 종류가 있

54) "不換金正氣散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或寒熱往來 蒼朮二錢 厚朴·陳皮·藿香·半夏·甘草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p.1071.)
5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제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407.
56)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으니 춘알(春謁)이다."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윤4월 28일)
57) "命進御 二錢重 人蔘粟米飲 自今日 一貼式限二貼煎入." (日省錄, 현종 15년 5월 5일)
58) "行藥院入診于觀物軒. 都提調權敦仁曰 '近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面部上有浮候云矣. 今此仰瞻 有微浮之候 下情不勝惶惶 大小便則何如? 日間諸節 更若何?' 上曰 '大小便頗通利 但有微浮之氣 而姑未快勝矣.' 敦仁曰 '小溲多少何如乎?' 上曰 '去夜洽爲一甬兒矣.' 敦仁曰 '通計晝夜 爲幾次乎?' 上曰 '自初更前 至四五更 小溲洽爲半甬兒矣.' 敦仁曰 '小溲如通利 則微浮之候 自當漸臻快降矣. 寢睡水刺之節何如?' 上曰 '寢睡頗穩 而飲啖亦如常 但食後 微有脹意矣.' 敦仁曰 '臣未得入侍 幾至踰月矣. 神色諸節 別無加減 而還有差勝之漸矣.' 上曰 '微有浮氣 而其外則比前日少有差勝矣.'"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5월 14일)
59) "命藥院輪直."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5일)

60) "命進御 加味君子湯 三貼製入." (日省錄, 현종 15년 6월 5일)
61) "加減四君子湯 治久病胃弱 全不納食 聞食氣則嘔. 四君子湯 去茯苓 加人蔘·黃芪·香附子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生薑三片 水煎服.(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p.1284.)
62) "藥院并直."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6일)
63) 각신(閣臣): 규장각(奎章閣)의 관원.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處. 1979. p.11.)
64) "教曰 藥房三提調 時原任大臣 閣臣入侍."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6일)
65) "移藥院爲侍藥廳."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6일)
66) "行廟社宮山川祈禱."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6일)
67) "命大寶納于大王大妃殿."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6일)
68) "午時 上昇還于昌德宮之重熙堂." (朝鮮王朝實錄, 현종 15년 6월 6일)
69) "命進御 桂附理中湯 一貼煎入. 又命進御 加味理中湯 一貼煎入." (日省錄, 현종 15년 6월 6일)
70) "桂附湯 治自汗漏不止. 桂枝·附子炮 各二錢半. 右剉 如前法服.(濟生)"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54.)

다. 그 가운데 육계가 들어간 계부탕은 부인들의 백대하(白帶下)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관련이 적어 제외할 수 있으나,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계부탕은 약물 구성이나 적응증도 비슷해 어떤 종류의 계부탕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동의보감』에 거론된 적응증 표현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계계가 들어간 계부탕은 일반적인 기허(氣虛)로 인한 자한증(自汗證)에 사용되는 것으로, 또 계피가 들어간 계부탕은 좀 더 몸이 쇠약해져 양기(陽氣)와 함께 음혈(陰血)도 허약해진 허한증(虛汗證)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망 당일 헌종에게 올렸던 계부이중탕은 계피가 들어간 계부탕과 이중탕을 합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중탕⁷³⁾은 비위허한(脾胃虛寒)으로 배가 그득하고 아프며 자주 설사하는데 쓰는 처방이다⁷⁴⁾.

당일 같이 올렸던 가미이중탕도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東醫寶鑑·雜病·寒』에 수록된 것⁷⁵⁾으로 비위허한증(脾胃虛寒證)이 오래되어 배가 차고 아프면서 설사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 쓴다고 하였고⁷⁶⁾, 다른 하나는 『東醫寶鑑·雜病·咳嗽』에 나오는 것⁷⁷⁾으로 폐위(肺胃)의 한증(寒症)으로 인해 기침이 나는데 쓰는 것이다⁷⁸⁾. 두 가지 가미이중탕이

처방 구성이 비슷하지만 헌종이 주로 호소하고 있는 비위허한증(脾胃虛寒證)을 고려하면 당일의 가미이중탕은 『東醫寶鑑·雜病·寒』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소략한 병증 기록만을 남긴 채 23세의 젊은 임금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사망과 관련한 두드러진 병증 기록이 없기 때문에 헌종의 확실한 사인을 구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헌종의 사인을 단순히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⁷⁹⁾.

전술한 바와 같이 헌종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거북한 체기(滯氣) 증상, 그리고 사망 약 20일 전에 나타난 부종(浮腫) 정도이다.

헌종의 사인과 관련하여 주목하게 되는 특징적 증상이 바로 부종이기 때문에 부종 증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체기(滯氣) 증세로 표현되는 위장장애로 인한 부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장애로 인한 부종만으로 20일 만에 젊은 임금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간경변증으로 인한 부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복수(腹水)라든지 간경변으로 인한 증세가 기록상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헌종의 부종을 직접적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심부전증(心不全症)이나 신부전증(腎不全症)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 먼저 울혈성 심부전(鬱血性心不全)으로 인한 부종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헌종의 경우 울혈성심부전증의 특징적 증상인 호흡곤란, 하지부종(下肢浮腫) 등의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⁸⁰⁾.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부종 증세가 주로 (面部)에 나타났다고 한 것으로

71) "桂附湯 治陽虛血弱 虛汗不止. 桂皮三錢 附子炮二錢.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460.)
 72) "桂附湯 治白帶腥臭 多悲不樂 大寒之證. 附子炮三錢 肉桂一錢 黃柏·知母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東垣)"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246.)
 73) "理中湯 治太陰腹痛 自利不渴. 人參·白朮·乾薑炮 各二錢 甘草炙 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81.)
 7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제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830.
 75) "加味理中湯 治瀉冷積寒. 附子炮·人參·白朮·乾薑炒·肉桂·陳皮·白茯苓·甘草炙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回春)"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1139-1140.)
 7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제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8.
 77) "加味理中湯 治肺胃俱寒 咳嗽. 人參·白朮·乾薑·甘草·赤茯苓·半夏·陳皮·細辛·五味子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丹心)"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1305-1306.)
 7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제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8.

79) 홍성봉은 그의 논문에서 헌종의 질병기록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사인을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으로 추정했다.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韓國人口學會誌, 1991. 14(1). p.43.)
 80) 심부전(心不全)으로 인한 부종의 일반적 증상은 호흡곤란과 함께 부종이 하지(下肢)에 심하고 저녁 때 심해지는 것이지만, 드문 경우(三尖瓣狹窄症, 收縮性心膜炎) 안면부의 부종도 나타난다. (李文鎬 外 2人, 內科學(上), 서울, 學林社, 1986. p.67.)

보건대 심부전증으로 인한 부종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부전증으로 인한 부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종의 경우 면부(面部)에 부기가 나타날 때 밤중에 소변을 반 요강 정도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격한 소변량 감소를 수반하는 급성신부전증보다 만성신부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만성신부전증은 오랜 기간 증상이 없이 잠복되어 진행되다 다뇨(多尿)·야간뇨(夜間尿)의 증상을 드러내고 나중에 무력감·피로감·불면증·식욕부진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말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이 나빠지며 심부전증(心不全症) 등을 나타낸다⁸¹⁾. 헌종에게 나타난 체기(滯氣) 증상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요독증(尿毒症)에 의해 소화기계 이상 증세가 수반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결론적으로 평소 헌종은 비교적 질병관련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종 무렵에 나타난 부종 증상을 생각해 보면 만성신부전증(慢性腎不全症)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 『風雲韓末秘史』의 헌종 관련 기록

1946년 발행된 『風雲韓末秘史』에는 사료에 나오지 않은 헌종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다. 책의 서두에 실린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王之好色이 甚則齊國은 其庶幾乎

獻宗은 冲年으로부터 好色이 심하사 六宮粉黛의 花容月態와 春山秋波가 서로 嬌艷을 競爭하나 오히려 龍顏一解하는 滿足을 得지 못하여 良家女子의 傾城傾國하는 美色을 選入하여 芳名을 半月이라 命하여 昌德宮內 建陽入재 東便僻淨處에 清潔한 寄正을 建築하고 半月로 하여금 文君의 當爐를 模倣하고 春風秋月의 興到來時는 혹 微服으로 過訪하사 爐前立飲之戲를 行하시니 此는 國家의 昇平이 日久하고 四

方에 無一事한 熙皞氣象을 畫出함이라 謂할는지 이때 閭巷의 童謠는 다음과 같이 傳하였다 [獻宗은 後에 憲宗이라 改定하였다]

堂堂紅衣鄭草笠이 桂樹나무 稜杖을 잡고
建陽入재로 넘나든다 半月이나 圓달이나
네가 무슨 半月이나 初生달이 半月이지⁸²⁾

즉, 헌종은 소년시절부터 유난히 호색하여 궁궐의 아름다운 비빈궁녀(妃嬪宮女)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궁 밖 양가의 여자 중에 절세미녀를 뽑아 궁으로 불러들이고 이름을 반월(半月)이라 불렀으며, 또 창덕궁 내의 건양재 동쪽 으스스한 곳에 술집을 짓고 반월이 기거하도록 하여 간간히 미복 차림으로 들려서 유흥과 쾌락을 즐겼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朝鮮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日省錄』 같은 편년사료에는 전혀 나오질 않는 것이다.

『風雲韓末秘史』의 책 표지에는 저자의 이름을 소운거사(紹雲居士)로 적고 있는데, 책의 말미에 덧붙인 간기(刊記)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윤효정(尹孝定)으로 밝히고 있다. 소운거사는 경기도 양주 태생의 역사소설가 윤승한(尹昇漢)⁸³⁾을 말하며, 윤효정은 바로 그의 부친이 된다. 윤효정은 구한말의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로 갑오개혁 후 탁지부주사(度支部主事)로 있다가 1898년 제위양위(帝位讓位) 음모 사건이 발각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다 민비 시해사건의 주모자인 우범선(禹範善)을 고영근(高永根) 등을 시켜 죽이고 귀국한 인물이다⁸⁴⁾.

82) 尹孝定. 風雲韓末秘史. 漢城. 鷲山書林. 1946. p.1.

83) 윤승한(尹昇漢, 1909 ~ 1950)은 일제 강점기의 소설가이다. 대한제국 말기의 개화파 계몽운동가였던 윤효정의 아들로, 경기도 양주군 출신이다. 윤효정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자녀들을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한학을 가르쳤고, 윤승한도 정규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동안 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신문에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연재하였다. 이 작품들은 연재가 끝난 뒤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양주 현면 상패리 소재의 상패분교장을 지냈고, 한국 전쟁 중이던 1950년에 조선인민군이 양주를 점령했다가 후퇴했을 때 좌익으로 몰려 같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참조: <http://ko.wikipedia.org>)

84) 국사대사전편찬위원회. 國史大事典. 서울. 교육도서. 1988. p.977.

81)李文鎬 外 2人. 內科學(上). 서울. 學林社. 1986. p.1232.

윤효정은 1931년 초⁸⁵⁾에 동아일보에 '韓末秘史'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첫 회에 전술한 헌종 관련 비사를 기술한다⁸⁶⁾. 즉, 1931년 초에 아버지 윤효정이 신문에 연재한 기사 내용을 아들인 윤승환이 '風雲韓末秘史'라 이름을 바꿔 1946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료에는 헌종이 호색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지만 「韓末秘史」의 기사 내용을 전혀 근거 없는 민간의 야사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동아일보에 윤효정의 글이 처음 연재되기 시작한 시점이 헌종이 사망한지 82년이 되는 해로 억측이나 추측만으로 기사를 쓸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그 내용에 있어 반월(半月)이란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런 세태를 풍자한 민간의 동요까지 언급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동아일보 기사의 서두에 작자 윤효정을 소개하는 글에 "七十平生을 漢城에 있으시며 여러 韓末志士들과 交遊하여 親히 보고 들은 바를 이에 쓰게 되었음으로..."라고 하여 기사의 내용이 흥밋거리로 꾸며댄 이야기가 아니라 윤효정이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 헌종이 어려서부터 호색하다 결국 몸이 쇠약해져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⁸⁷⁾. 그러나 헌종이 호색했다는 사실여부를 떠나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설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건강부회식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사료에 헌종의 질병을 폐결핵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련 병증이나 치료처방 등이 한 가지도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III. 結論

85) 東亞日報 昭和6年 2월 17일자 기사.

86) 연재 기사의 첫머리에 "이 韓末秘史를 쓰시는 尹孝定氏는 前大韓協會會長이였고 政治家요 雄辯家요 志士로 七十平生을 漢城에 있으시며 여러 韓末志士들과 交遊하여 親히 보고 들은 바를 이에 쓰게 되었음으로 讀者들의 많은 興味와 참고가 될 줄 믿는다."라고 하여 저자가 윤효정임을 밝히고 있다.

87)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pp.225-233.



그림 1. 風雲韓末秘史

사료에 나타난 헌종의 질병 관련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에는 헌종의 내의원 입진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특별한 병증이나 치료 내용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전대 순조의 질병기록이 상세한 병증표현과 함께 사용된 처방가짓수가 10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⁸⁸⁾. 또한 『承政院日記』나 『日省錄』에도 헌종이 17세 무렵 두후(痘候)를 앓았을 시와 23세로 사망할 무렵에만 몇몇 치료처방이 사용된 것을 수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건대 헌종이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해 보였고 별다른 병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헌종은 8세에 즉위한 무렵 인삼숙미음(人蔘粟米飲)을 복용했지만 치료목적 보다는 조리식이나 보양식 정도의 의미로 생각된다.

17세 무렵에 두후(痘候)를 앓아 약 10일 후에 회복되었는데, 당시 가미활혈탕(加味活血湯)·가미위용탕(加味歸茸湯)·귀용보원탕(歸茸保元湯)·감로회천음(甘露回天飲) 등을 복용했다. 이런 처방은 선대왕인 순조가 두창(痘瘡)을 앓았을 때와 거의 비슷한 치료방제를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종은 23세가 되어 봄부터 몸이 쇠약해진다. 처음에는 얼굴이 여위고 까칠해지며 식후에 배가 더부룩

88) 拙稿를 참조할 것.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pp.107-126.)

하고 거북한 체기(滯氣) 증상을 호소하는데, 약물처방으로 가미이공산(加味異功散)·귀용군자탕(歸茸君子湯)·가미불환금정기산(加味不換金正氣散) 등이 사용된다.

사망 약 20일 전에는 식후에 배가 더부룩한 증세와 함께 부종(浮腫) 증상이 나타난다. 사망에 임박해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계부이중탕(桂附理中湯)·가미이중탕(加味理中湯) 등을 복용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만성신부전증(慢性腎不全症)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헌종의 주요 질병과 치료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령	주요병증	치료 처방
헌종 즉위년 (8세)		人蔘粟米飲
헌종 9년 (17세)	痘候	加味活血湯 加味歸茸湯 歸茸保元湯 甘露回天飲
헌종 15년 (23세)	얼굴이 여위 고 꺼질해짐. 식후에 배가 거북한 滯氣. 浮腫. 腎不全症 악 화로 사망.	加味異功散 歸茸君子湯 加味不換金正氣 散 人蔘粟米飲 加味君子湯 桂附理中湯 加味理中湯

표 1. 憲宗의 주요 질병과 治療

參考文獻

<논문>

1. 金勳.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會誌. 2009. 22(2). pp.107-126.
2.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韓國人口學會誌. 1991. 14(1). p.43.

<단행본>

1. 實錄廳撰. 朝鮮王朝實錄CD-ROM. 서울. 서울시스템(주). 1995.
2.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5.
3. 奎章閣 編. 日省錄(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筆寫本).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659.
5.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54, 410, 429, 460, 1071, 1081. 1246, 1251, 1284, 1588, 1775, pp.1139-1140, 1305-1306.
6. 서울시스템(주). 국역 조선왕조실록 해설집. 서울. 서울시스템. 1995. pp.233-236.
7.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6. pp.411-417.
8. 박홍갑 外 2人. 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서울. 산치림. 2009. p.193.
9.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pp.225-233.
10.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24, 128, 2709.
1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8, 407, 830.
12. 국사대사전편찬위원회. 國史大事典. 서울. 교육도서. 1988. p.977.
13.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處. 1979. p.11, 134, 451, 760.
14. 李文鎬 外 2人. 內科學(上). 서울. 學林社. 1986. p.67, 1232.
15. 尹孝定. 風雲韓末秘史. 漢城. 鷲山書林. 1946. p.1.